



교육열 높은 도시에 참교육학부모회 지회 발을 내딛다

오랜 기다림과 설렘의 결실, 안양지회 창립

지난 9월 7일(금) 오후 7시, 안양지회 준비위원회는 안양 만안여성회관에서 창립식을 열어 안양지회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정심 준비위원장을 지회장으로, 배외숙·정진화 준비위원을 부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우리회 장은숙 회장을 비롯해 송환용 수석부회장, 최주영 부회장이 참석해 안양지회 창립을 축하했다. 장은숙 회장은 축사에서 “안양 지회 발전을 위해 본부에서 적극 돕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은 축하인사에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꿈을 잃은 학생이 너무나 많다”며 “우리 자녀들의 바른 성장과

교육 여건 개선을 하는데 안양지회 창립은 의미가 크며 참교육이 정착되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최철환 교육의원은 “지회 창립의 산고가 길었던 만큼 든실하게 자라리라 생각한다. 적극 지지하고 단체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안양지회가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안양과 경기 교육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심 지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도 오랜 기다림과 설렘으로 시작한 안양지회가 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창립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밝히며 각자의 소감과 참교육

을 위해 뚝뚝뚝 걸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창립식 참석하지 못한 김상근 경기도교육감이 축하영상메시지를 보냈고, 이석현 국회의원이 축전, 권혁록 시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도의원, 학교운영위원장, 안양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 민주노동당, 참여당의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안양지회의 출발을 응원했다.

창립식에 이어 이종태(교육학박사, 전 청소년 정책 연구원장) 박사의 ‘자기주도 학습법’을 주제로 한 기념강좌가 열렸다.

이정심(안양지회장)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1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법령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법제화까지 된다면 학생인권이 더욱 든든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각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9월 14일, 학생인권에 관한 의견 수렴 차 우리회

를 방문한 교과부는 ‘교육력 강화와 학생인권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자료집’을 제시했다. 발제문에는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학칙 제정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학교장 독재를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게다가 교과부는 지금까지 도교육감의 권한이었던 학칙 인가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08년 1차 상정) 지난 9월 1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법이 개정되면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삭제되는 반면 학교장이 학칙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학칙 안에 체벌, 두발규제 등을 모두 담



을 수 있어 학생인권은 퇴보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회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운동 단체들은 9월 27일 ‘학생인권조례 무력화하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갖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 8.23 [공동기자회견문]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를 반대한다!
- 9.08 [기자회견문] 교과부 장관은 상시대 사분위 결정 취소하고, 사분위는 비리재단 복귀 논의 전면 중단하라!
- 9.09 [성명서] 상주 교육청은 외부행사에 대규모 학생 강제 동원계획을 철회하라!

- 9.13 [기자회견문] KBS 안전관리팀의 비리 혐의 고발한다
- 9.15 [성명서] 학생성금 착복한 학교장 정직 3개월에 대한 성명서
- 9.17 [논평] <후플러스>, <W> 시청률 타하기 전에 무능한 경영진부터 물러나야

이달의 주요기사

- 02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배움의 공동체
- 04 교육자치 학운위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 07 기획특집 2014년 대입선진화 방안
- 10 지부지회소모임-남부지회 영화를 통해 청소년이해하기
- 11 상담실 집단따돌림 방치한 담임교사
- 15 사실 학생인권 유린하는 초중교육법 중단하라

1회 도서관 살리기 2회 교장공모제 학교 3회 2010우리교육에바란다 4회 지역아동센터 5회 새터민학교 6회 꿈꾸는교실 7회 행복한 성적표 8회 공간민들레 9회 교육소외계층 지원 교사모금 10회 체벌 없는 학교 11회 배움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로 학교혁신을 일구는 시흥 '장곡중학교'

일본에서 학교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원리로서 일본 동경대학교 사토마나부 교수에 의해 주창되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는 수업연구를 위한 실천적인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 기본철학은 '모든 아이들의 배움 권리와 질 높은 배움을 보장' 하는데 있다. 학교는 공공성, 민주주의, 탁월성이라는 세 가지 철학적 원리에 입각해 운영되어야 하며, 일상의 수업을 통해 교실이 배움의 공동체로 재구성될 때 학교는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연대하는 공공적인 공간으로 구축될 것이라는 것이다. 2010년 3월 혁신학교로 지정된 시흥 장곡중학교에서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으로 학교혁신을 일구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느끼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학생 옆에 무릎 꿇고 앉아 가르치는 즐거움



"저 아이가 작년에는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앉아 있었겠구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학생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수학 푸는 걸 지켜보고 도와준다. 장곡중학교가 혁신학교를 시작하지 한 학기. 요즘 내 수업시간의 모습이다.

우리학교는 작년까지 상중하 수준별로 반을 나눠 수업을 했다. 상반 수업에 들어갈 때는 '잘하는 애들이니까...' 하반 수업에 들어갈 때는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은 어차피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마음을 바탕에 깔고 수업했다. 그러면서 4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한 시간 내내 혼자 떠들고 나오면서, 열심히 수업했다는 뿌듯함으로 교무실로 돌아오곤 했다. 학생들이 날 쳐다보고 있으면 수업을 듣고 있는 거라고, 질문이 없으면 다 알아 들어서 질문이 없다고 착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착

각이었다는 사실을 올해야 깨달았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이 정도까지 기초가 안 되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판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선생 앞에서 귀 닫고, 마음 닫고 견뎌야 했을 학생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급별 학생수가 30명으로 줄었다. 인원이 줄었지만, 작년처럼 일제식 수업을 했다면 올해도 역시 학생들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지적당하는 학생들은 일 년 내내 지적 당했을 것이고, 아이들과 나 사이에 수업 이외의 수많은 신경전이 벌어졌을 것이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내 수업을 힘들게 만들었던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한 시간 내내 돌아다니고, 친구 등을 쿡쿡 찌르며 수업을 방해하던 아이가 노트에 문제를 풀고, 질문을 한다. 친구들에게 묻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기쁨을 넘어 감동마저 느낀다.

'원래 한 반에 한두 명 쯤은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이 있는 법, 어떻게 수학을 학생들이 다 알아들길 바라 바다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알아듣는

애들이나 열심히 가르치는 거지...'

혁신학교를 계기로 수업 형태를 바꾸지 않았다면 타성에 젖어 이런 감동을 느껴보지 못한 채 선생노릇 하면서 열심히 수업을 했다고 말했을 것이다.

어제도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데 한 아이의 "재밌다"는 혼잣말 소리를 들었다. 정수의 뒷셈 뺄셈도 잘 안 돼 연립방정식 한 문제 푸는데 한 시간을 다 쓰는 학생이다. 한 시간 동안 한 문제일지라도 본인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성취감을 느끼며 드디어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재미있는 것이다. 기대 수준은 다르더라도 사람마다 배움의 욕구가 있다. 30명의 아이들 모두 앞에 대한 욕구가 있고, 알아냈을 때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수업이 변하니 아이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느껴진다. 물론 혁신학교를 시작하고 수업혁신에 대한 연수로 학교 일과가 팍 조여진 불편함은 있다. 등교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수업을 시작하고, 수요일 오후 시간 확보를 위해 수업 속에서도 아이들과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느끼기에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이후학교로 수업참관 갔을 때 어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학교가 즐겁다는 말에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이선영(2학년 수학 담당 교사)

해도가 다른 아이들이 서로 도와가며 이끌어주고,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배워가는 분위기가 되었다. 아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로 Win-Win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학교에 들어와 수업내용은 어려워졌지만 수업참여도는 더 높고 재미있다고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가 학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다보니 우리아이들은 친구를 우정을 나누어야 할 대상이 아닌 이기고 놀려야 하는 경쟁 상대로 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배움의 공동체 수업에서 서로 이끌어주고 받쳐주며, 협력하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우리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알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이 변하고 더 나아가 세상이 변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미희(학부모)

배움의 공동체, 달라진 교실 풍경 속으로

3학년 첫날, 꽃샘추위에 오들거리며 약간 어색한 기분으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배치가 달라진 책상과 마주 보고 앉아 있던 친구들이 신기해하면서 재밌다는 표정으로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혁신학교, 배움의 공동체 수업, 일본 학교의 다양한 수업 영상, 즐겁고 행복한 학교 문화, 사회복지사님과의 첫 만남은 물론 입을 삐죽거리며 회의적인 친구들도 많았지만 정말 우리들이 꿈꾸는 학교가 이루어지나 싶은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선 학교생활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도입된 교실풍경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책상이 'ㄷ' 자 형태로 배치되어 앞에서

설명하시는 선생님께 집중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잘 보이지 않던 칠판도 어느 자리에 앉든 잘 보였고, 따라서 수업 시간에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45분을 줄곧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고 받아 적는 식이었을 때는 수업이 지루해질 때가 많았는데, 요즘엔 기다려지는 수업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수업 중간 중간에 모둠활동을 통해 우리들 스스로 문제를 풀이 나가고, 생각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수업 시간이 재미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떠들거나 딴 짓을 해서 수업을 방해하던 친구들이 2학년 때에 비해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매를 들고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데도 수업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모둠 수업을 하면서 별로 친하지 않았거나, 처음 본 친구와 같이 상의

하고, 모르는 것은 알려 주면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이 사라져 친구들끼리의 위화감도 사라지고 더 행복해지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고입을 앞둔 3학년 생활이 아무래도 내신 경쟁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짐작했던 때가 아득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도입했다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별 기대감을 갖지 않았던 친구들도 우리가 얼마큼이나 행복해질까 빼죽거렸던 친구들도 이런 자연스럽게 모둠활동을 하고 시끌시끌 토론하고, 저요-저요-를 외칩니다. 겨우 1학기, 그 짧은 시간에도 더불어 배우고 알아가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의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배우고 알아가는 이 수업이 다른 학교에도 널리 퍼져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3학년 9반)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나의 디딤돌 중학교

나는 6학년 때 중학생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함께 선생님이나 무섭다는 얘기 때문에 두려움도 컸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모두 다른 중학교로 가서 약간 쓸쓸한 마음으로 입학식 후 교실에 들어왔다. 그때까지도 괜히 친구들이 있는 중학교로 가고 싶었다.

그런데 입학식 첫날 담임선생님께서 ㄷ자 모양으로 책상과 의자를 바꾸라고 하셨다. 이상해서 책상 배치를 바꾸는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이진 혁신학교에서 쓰는 배움의 공동체 모형인 ㄷ자 책상 배치라고 하셨다. 초등학교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공부 방법이라 새로웠고, 학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조금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ㄷ자 수업방식이 이해가 되고 적응이 되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ㄷ자 가운데로 선생님이 다니시면서 주변 친구들의 질문도 받아주시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 무엇보다도 수업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

둠활동이 많아서 협동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 선생님이 칠판에서 줄줄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 집중도 역시 잘 되었다.

다른 학교는 어쩔지 궁금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80%이상의 친구들이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고 학생들은 지루해한다고 했다. 모둠수업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학교 얘기를 들은 그 친구는 자기네 선생님들이 우리학교처럼 적극적으로 공부를 도와주시고, 학생들 모둠 활동을 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



우리학교는 혁신학교입니다!

2010년 우리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책상배열을 바꾸고, 학급당 인원을 25% 가량 줄이면서 선생님과 학생이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바둑알처럼 뻘뻘이 맞춰져 지루했던 학교생활을 탈피한 것이다. 친구들과 이뤄지는 좀 더 심화되고 활발한 발표·토론활동으로 그저 선생님의 이야기만 듣고 머릿속에 집어넣던 공부방식이 아닌, 내 생각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교환하는 포괄적인 공부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입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닌 나 스스로를 계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다.

또 혁신학교가 되면서 대의원회의가 활성화되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는 온갖 설문조사를 하거나 대중대중 보내는 시간으로만 생각되었지만, 선

함께 하는 친구사랑의 날 등 우리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학교문화가 풍성해졌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조금씩 바뀌고, 그 일의 중심에 우리 학생들이 서게되는 혁신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 행운이라 생각한다. 몇 개월간의 새로운 방식으로 아직 부묘운영회와 학생부 절차를 거친 학교 규칙들은 학생들의 책임감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 것 같다.

등굣길 풍경도 달라졌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을 향해 웃으면서 인사

를 하신다. 학생부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웃음으로 호환받는다는 느낌마저 갖게 한다. 아침마다 머리 길이 때문에, 교복치마 때문에 혼나는 아이들이 사라진 것이다. 혁신학교가 되면서 생활규정을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모아 자율적으로 개정해서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사회 복지사님이랑 자원봉사학생들이랑 캐릭터 옷 입고 함께 하는 안아주기, 하이파이브 행사, 담임선생님과 학급친구들이

유진선(3학년 7반)



함께하여 더욱 즐거운 학교

올해 우리아이가 배정 받은 학교는 집 근처 장곡중학교였다. 학교에 대한 호기심에 먼저,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혁신학교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뭔가 평범하지 않은, 그동안 흔히 접해왔던 교육방식은 아닐 것 같다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이곳저곳 검색해 보고, 자료도 찾아보았다. '단 한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 지역 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경쟁과 차별을 넘어, 협동적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지난 9월15일 서울교육문화관에서 교육개발원 주최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있었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발제문에 대한 우리회 토론문을 간단히 정리했다. 토론회 자료집 파일은 우리회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실렸다. <편집자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당국의 사회적 논의는 적절하다.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학교운영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학교 운영의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학부모위원은 일반학부모와 함께 학교급식, 열병, 수련활동, 교복공동구매 등 활동을 하며 학교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학운위를 통해 학교운영이 공개됨으로써 투명한 학교로 변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운위의 태생적 한계와 구성원의 의지 부족으로 학운위의 역할과 위상이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학운위는 교육의 민주성, 평등성, 참여성을 보장하는 학교개혁 계도이기 때문에 학운위를 활성화하고 강화시켜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목적

김성열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에 기반한 학교교육 자율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최근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서 학운위를 강화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지난 15년 동안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단위학교에서 학운위는 제자리를 찾기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공개토론회의 개선 방향은 학운위가 설립 취지대로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제도 개선 안이 포함되어야 했다.

학부모위원들과 엮갈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15년 성과

김성열 원장은 “15주년을 맞은 학운위의 운영 경험에 의하면 학교운영의 민주화 촉진, 투명성 제고, 학운위 구성주체들에게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도 일부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이 아닌 뜻있게 활동하는 많은 학부모위원들에게 학운위에 대한 만족도보다 불만과 불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즉 발제자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시했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좀 더 원인을 분석해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전제되어야 발전적인 학운위가 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참여 활성화 방안 중

현행 학부모위원의 구성 비율을 그대로 두고 학부모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을 조정하여 학부모위원으로서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것(상향조정)에 대하여 현행 학부모위원의 구성 비율을 그대로 두고 학부모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부모위원의 참여 활성화의 근본 해결책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민주적 선출과 그 대표성에 있다.

2006년 구논회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직선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비율은 16.9%이며 무투표 당선은 76.6%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무투표 당선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불법선관위와 불법선출사례를 유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학운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 만일 학교 실정상 전체 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방송 매체 활용, 우편 투표, 인터넷 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선출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총회 개최 시간을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학부모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회를 제도화해 학부모회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학운위 안전 상정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학운위 안전을 학부모들에게 사전공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간, 학부모회 등 임의단체를 학운위의 산하기구로 명시하여 학부모위원의 튼튼한 활동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학부모위원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학부모위원 구성비율의 상향조정으로 학부모위원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의견

어느 한쪽을 구성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듣는 것도 좋겠지만, 구성원들의 균형 있는 의견을 듣되 학운위와 학교 중심에는 우리 학생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대표를 10% 이내라도 학교운영위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운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운위 의견수렴 활성화 및 의견제시 기회부여의 건

학생생활 관련 안전 심의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대표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하겠다는 것은 진일보 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학생이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학교회나 학생회의 의견이나 건의 사항이 안전으로 상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운위 발언권 부여에 대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학생회의 법제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 학생

부나 교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회의 법제화 없이 학생대표의 발언 허용은 자칫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다.

학부모부담경비 심의시 학부모의견 수렴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

지금도 학부모 부담경비 심의시 학부모의견을 묻고 있으나 참여도 조사에 그치고 있어서 참여 의사를 밝힌 학부모는 세부 결정 사항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주요한 세부 내용 결정과 평가까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학운위 참여 확대 방안

전문가를 지역위원으로 참여 확대하는 방안과 소위원회 구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 확대하는 방안에 있어서 학운위 위원은 관공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 전문가가 필요 할 때마다 별도로 모셔서 자유롭게 도움을 받거나 공부를 하면 된다.

학운위 책무성 강화 : 안전 및 회의록 공개

현재도 안전 및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원회 의결로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내용은 악용될 소지가 많아 우려스럽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연수 실시, 사이버 연수 프로그램, 심의 매뉴얼 제작 보급, 우수 활동 사례 공유
교육청은 대규모 단시간 교육은 지양하고 단위학교에서 주제별로 연수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는 다양한 강사풀과 콘텐츠즈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타 제언과 마무리

그 동안 학운위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면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교육개혁의 사례들이 학교현장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운위는 위원 선출을 하는 신학기 때 잠깐 언급될 뿐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기회에 국·공립, 사립학교의 의결기구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생의 의결권 부여, 학교장 교육,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회의 개최 회수 8회 이상 법적 근거 마련, 학교장의 안전 발의 독점에 따른 대책,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전문성 연수,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위배시 엄벌 조치 등 학운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 특히 학운위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학교를 독단 운영하는 학교장의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과 의지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며 모범학교를 널리 알려 사례를 공유하면서 학운위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

전은자(교육자치위원회 위원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 과정의 문제점과 제언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 규칙으로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 첫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원평가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가의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1. 학교장의 청탁 : 학부모총회 등의 자리에서 '학교평가에 반영되니까 잘 해 달라'는 일부 학교장의 공개적인 청탁사례
2. 학교장의 평가관리위원회 권한 침해 : 평가관리위원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특정 학부모를 지명하여 추천하는 사례, 평가결과 처리는 학교장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례
3. 공개 수업을 통한 평가의 한계 : 1년 1회 공개 수업으로 평가하는 한계와 문제
4. 너무 많은 평가대상의 문제 : 비교과 교사, 중등의 교과 교사 등에 학부모가 알 수 없는 교사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가 판단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평가 항목의 문제점
5.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 : 누가 평가했는지 학교가 알 수 있다는 등의 불안. 극히 일부 학교이나 학생 이름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솔직한 답변을 어렵게 하는 사례
6. 학교경영평가 문항의 한계와 학생 참여 제외의 문제 : 학교경

영평가(교장, 교감평가) 문항의 문제와 학생들이 제외되어 있는 문제
7. 부적격교사(문제교사 혹은 비교육적 교사) 문제의 실종 :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원하고 있는 부적격 교사(문제교사 혹은 비교육적 교사)문제는 실종되었으며 미흡교사에 대한 의무연수 부과 실효성 문제.

교원평가 정착을 위한 학부모의 제언

1. 학생 중심의 평가 : 학생중심의 교사의 수업과 학교경영, 학생 지도 평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 교감 평가에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학부모 평가(학교 경영 평가 강화) : 학교경영평가(교장, 교감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에 참여하며 교사에 대해서는 전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학교 관리자(교감과 교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가 항목으로는 학교운영계획서 작성 시 학생과 학부모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있는 만큼(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학교운영계획을 세울 때 학부모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는가?' '학교운영계획서를 받아보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가?' '학교운영계획서대로 실행되고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항목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2014년 수능시험 개편과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

교과부는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를 통해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는 입학전형 방법의 개선방안,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2014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이 담겨 있다.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의 취지

정부는 지난 8월 19일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점수 위주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인성, 창의성 등을 고려한 학생선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목표에 따라 “대입에서 수능시험 의존도를 줄이고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수능시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평가 받게 된다면 학교교육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작년 12월에 '2009개정 교육과정'이 확정 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한 수능시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현 정부는 4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개편 취지와 목표를 설명했지만 여론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다. 수험생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는커녕 중등교육은 대입시에 종속되어 더욱 황폐화되고 교육과정은 파행될 것이란 우려다. 심지어 정부 여당 내에서도까지 '중장기 대입 선진화 방안'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교육정책 실패로 이어져 현 정부의 부

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우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20%범위에서 각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과별 시수를 증감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시범실시 되고 있는 학교는 물론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발 빠르게 국 영 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금의 수능시험체제도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 영 수 위주의 대입경쟁교육이 한층 강화되었다. 게다가 이번엔 발표된 방안이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수능개편안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학교현장은 더더욱 국 영 수 중심의 경쟁교육으로 파행될 것이다.

다음,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사회와 과학 그리고 직업 과목 수를 통합하여 한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과목 수는 한 과목으로 줄었지만 전체적인 학습량은 줄지 않는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제 2안으로 선택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특정 학생이 선택한 교과영역의 학생 수가 적으면 학급이 구성되지 않아 학생의 교과학습권은 침해된다. 그렇지 않아도 중등교육에서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과 탐구영역, 예체능 교육이 무력화되어 가는데 MB정권이 자랑처럼 내세우는 다양성이 점점 획일화 되어가니 참 아이러니 한 일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가 난이도를 달리한 수능시험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하겠다는 것

3. 평가 항목 개발에 학생, 학부모 참여 : 학생, 학부모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쉬운 말로 개발해야 하며 이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4.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 : 다면평가에 연계하는 것은 반대하며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제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보다는 미흡교사에 대한 연수에 집중하여야 한다. 의무연수의 경우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5. 교원능력개발 시행주체 문제에 대해 :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진보교육감의 반기를 조기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의미로 시행주체를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에서 교과부로 변경, 법제화하겠다는 교과부의 의도는 참으로 위험해 보인다. 법제화는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는 진보교육감시대를 맞이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권한을 다시 교과부로 회수하여 시도교육청을 지배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여진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포함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숙자(정책위원회 위원장)

이다. 어찌 보면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수능시험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과목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입시현실에서는 두 번 다 치를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상위권 대학중심으로 철저하게 서열화 되어 있고, 대학은 성적우수 학생을 경쟁적으로 뽑으려 하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유형을 요구할 것이고, 수험생은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복수시행으로 시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 시행으로 인한 부담과 사교육비 발생이 더 클 것이다.

끝으로 입학사정관제 문제이다. 도입 초기에는 농어촌 지역할당제나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에서 실시되었으나 MB정권 들어 대입자율화와 맞물리면서 확대 실시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정 지원까지 하면서 확대 정착시켜 교육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이 대통령은 “농촌 학교에서도 인제가 나오고,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고 했으나 '개천의 용'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했고, 특목고를 우대하기위해 도입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지방의 일반학교, 서민, 중산층으로서의 언급생심이다. 준비해야 할 복잡한 전형요소와 요구되는 수많은 스펙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체제와 입시제도의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회는 10월 중에 개최될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모아 밝힐 예정이다.

정은숙(회장)

2014년 대입선진화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8월 19일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에서 2014년 수능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달리해서 2회 실시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탐구영역 과목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수능개편안은 앞으로 시행될 '미래형교육과정' 의 단위학교 자율권과 맞물리면서 '국·영·수' 위주 입시 경쟁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려는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의 과제와 전망' 에 대한 박도순님의 발제문 가운데 수능체제 개편의 진전과 우리의 현실을 요약해 실는다. (편집자주)

1.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의 전제

1) 중등교육과정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대입전형제도가 어떻게 수립·운영되

는가는 중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등교육은 대입전형제도 상의 선발기준과 시험내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첫째, 대입전형제도가 중등교육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전형기준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입시내용이 중등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중등학교의 내신이나 추천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선발기준에 연계되는가 그리고 시험 내용이 고교과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에 따라 중등교육이 대입제도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 결국 중등교육성과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광범위한 중등학교 본래의 교육활동을 대입전형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과 수능시험 내용이 단순한 암기위주 교육으로써는 성과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등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라 할 수 있다.

둘째, 전인교육 내용의 반영을 통한 중등교육 본질 추구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중등교육이 대입을 위한 예비기관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실시하려면, 대입전형제도 속에서 전인교육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하거나 대학입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전인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대입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독서를 한다든가, 음악이나 예술 활동에 심취한다든가, 현장 경험과 토론을 하는 일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의 특별활동,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 학교 내·외의 협동적이고 봉사적인 활동 등이 어떤 형태로든지 대입전형제도 속에 수용될 수 있어야만 중등 교육이 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등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맞는 성취준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는 중등교육과정이 특정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대학입시시험 내용의 비중을 따라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교육과정 본래의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대입전형제도의 내용과 형식이 중등교육과정의 운영을 선도하고, 교육방법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입시제도의 내용과 과목이 중등교육과정과 합리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선발기준과 시험내용이 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경쟁이 되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의 과제와 전망

독록 해야 한다. 입시경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러한 경쟁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취미와 관심이 없는 분야의 기계적 암기를 요구하는 경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은 특정영역을 고차적 정신능력 위주로 측정할 때만 가능하다.

2)대학 자율성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대입전형제도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의 두 원칙이 강화된다면 대학의 특성화된 발전 방향에 따른 대학의 학생 선발권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공공성의 원칙과 부합될 때 대학의 사회적·교육적 책무를 담보할 수 있다. 공공성의 원칙이란 대입전형제도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규범에 부합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당위적인 원칙이다. 우리나라 대입전형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 공공성의 원칙에 관련된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교육기회의 형평성, 그리고 중등교육의 정상화 문제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오직다양성의 원칙과 자율성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면, 국·영·수 강화, 대학 본고사 시행, 고교 등급제 활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가피하게 불거질 것이다. 즉, 대입전형제도의 공공성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현실

1) 대학입시와 중등교육의 현실

지금까지 대입전형에 관한 한 각 대학의 최우선과제는 '우수학생 유치'였다. 그러나 '우수학생'이라는 개념이 학업성적 우수자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당 부분 대학 자율에 맡겨진 입시제도 아래서도 대부분의 대학은 학업성적이 주류를 이루는 전형방식의 틀에 묶여 있다. 고교의 비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지식전수위주 수업, 획일적 평가는 근본적으로 학업성적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업성적'이라는 준거를 통해 우수자를 변별해내는 것이 대학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해 온 대학의 잘못된 관행, 암기 위주 교육을 유도하는 선택형 시험이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한다고 여겨 온 잘못된 평가 인식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다. 이런 잘못된 대입전형 관행은 결국 고액과외를 유발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고, 비교육적 경쟁을 유발해 전인교육이라는 고교교육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2)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그 동안 우리 대학입시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학교의 학업성취도나 수능 석차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무한 입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교육과 대학입시 간에 차가 클수록 사교육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 현행 대학입시와 고등학교 교육 간의 특이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뤄지는 잦은 대입제도의 변화 또한 과외를 부추긴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능가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대입전형제도가 사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학입시와 학벌주의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가장 중요한 개인의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직장을 구할 때나 승진을 할 때나 보수를 받을 때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벌주의는 과거제도를 통해 관리를 충원했던 전통 사회까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지만 조선왕조 붕괴와 일본의 식민통치에 의한 전통의 단절은 계급구조의 와해를 가져왔으며, 이제 학교교육이 거의 유일한 계층상승 통로가 되었다는 점이 학벌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 결과 대학 진학 열이 커지며 과열과외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를 파생시켰다.

실력사회는 특정 영역의 실력을 중시하기에 평가기준이 다양하고 그 결과를 인간 전체의 평가로 연결시키지 않지만, 우리는 일반적 잠재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능력의 평가가 곧 인간의 평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경쟁은 전 인격적인 경쟁이 되어 버리고, 단순히 학습성과를 겨루는 경쟁에 그쳐야 할 학교 교육체제 내에서의 경쟁이 '인생경쟁의 출발점'이 되어버려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가 치가 다원화되지 못한 우리 사회는 성공의 기회가 매우 제한된 것으로 인식되어 그 기회를 포착하는데 필수조건인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다.

박도순(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 전 고려대 교수)

끊임없이 변화하는 입시제도

나는 아이가 둘 있는데 큰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다. 그 아이에게 적용되는 입시제도가 또 많이 바뀔 것이라고 한다. 시험과목이 줄어들고 선택 방법도 달라지는 등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입시제도와 함께 정말 혼란스럽다. 대부분의 해당 학부모, 특히 엄마들은 잘 알고 있을 게 분명할 일이지만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관심이 덜 했고 끊임없이 변하는 입시제도에 정말 짜증이 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적응하기 힘든 입시 환경 때문이다.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왜 엄마가 아파트 분양 신청하는 것처럼 이런 저런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동분서주해야 하는 건지 나 같은 '블랭' 엄마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엄마가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일선 교사들조차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사태를 조장하는 교육당국과 관계자들이 기본적인 교육 목표나 원칙을 갖고 있기

나 한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다. 왜 대학에 가야하고,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공정한 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학부모와 학생은 점점 더 사교육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급식비·교재비·특강비 등이나 쟁겨 먹을 공리하는 동네 구멍가게 같다는 느낌이다. 그 쓸모를 느끼지 못한다.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모두 한다는 이유를 대며 0교시, 야간 자율학습은 계속되고 있고, 아이들은 정신이 반쯤 나간 좀비족처럼 새벽녘이나 한밤중에 슬금슬금 기어 다닌다. 이제는 불쌍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안타까움이 든다. 여러 조사 결과로도 증명됐듯이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 해야 하고,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고등학생들도 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의 첫 번째 원칙은 혼자서 공부해도 충

분할 수 있게 창의적인 아이들의 능력이 잘 드러날 수 있게, 가난한 집 아이도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교육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바라는 입시제도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자기공부를 어느 정도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쉴 수 있고, 늦어도 열두시에는 자고 여섯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든든히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되게 만들어라, 백 년 아니고 십년이라도 앞을 보고, 분명한 원칙은 흔들지 말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고, 약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눈치보지 말고, 소신 있고 당당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바꾸지 마라.

김효신(학부모)

공평하게 대학 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 연북중학교 3학년 임재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성적이 학급에서 중간정도 밖에 안 돼서 엄마에게 항상 눈총과 꾸지람을 들을 때가 많고요, 만날 왜 공부 안 하고 친구들과 놀 생각만 하냐고 들볶임을 당합니다. 저는 진짜 힘들고 짜증날 때가 많고 학교가기가 싫어질 때도 있어요, 한때 상위권에 들어 있을 때도 있었는데 갈수록 등수가 떨어져요.

저는 솔직히 공부가 싫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만 하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태도가 갈수록 잘못돼 간다고 선생님들께 지적받고 꾸중 듣고 벌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나도 내가 갈수록 왜 이러는지 싫지만 저는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만 싶어요, 아빠는 저를 잘 이해 해주시고 저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저는 지난 일제고사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거부했어요, 아빠께서 긴 시간 동안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고 제가 하고 싶은대로 하라는 아빠의 말씀으로 첫날은 시험 시간에 늦게 도착해서 문제는 보지도 않고 제가 찍고 싶은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답안지 숫자만 채워 넣어서 제출했고, 둘째 날은 아빠가 선생님께 재현이가 시험 거부한다고 미리전화를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학교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안 보고 자습과 독서를 했어요.

제가 대학수능시험 볼 때부터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설명을 아빠에게 들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냥 수능시험 두 번 본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보기 싫을 텐데 두 번 본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싫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교에 누구나 공평하게 갈 수 있으면 해요.

제가 고3정도 되면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어질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우선적으로 더 사람대접해주고, 저같이 공부 싫어하고 못 하는 애들은 그냥 둘러러린 것 같아 다니기 싫어요, 그래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애쓰시는 선생님들도 있긴 있어요, 저도 느껴요.

특목고 출신 학생을 선발하려는 고려대학교 웃기는 애기도 들긴 들었고 자기부인이 입학사정관이라는 말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웃기는 사람 애기도 들긴 들었어요, 도대체 어른들은 왜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대접받고 저같이 못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대접받으면 되죠, 다만 원칙에 어긋나는 웃기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실망시키고 오염시키는 어른들이 없었으면 해요.

임재현(연북중 3학년)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처음에 수능을 2번 실시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왜 하필이면 우리 때부터인지 하는 생각과 함께 어른들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시험에 시달리고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여간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닙니까.

15일 간격으로 보는 것이 학생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부담감이 매우 큼니다. 그 부담감이 실전에서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능제도를 처음 실시하던 해에도 수능을 2번 보는 제도였는데 그 때 실패한 제도를 지금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목 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줄어든 것이 아닌 통합된 것으로 공부할 때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유행을 나눔으로써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에서 볼 것이

틀림없는 자체고사의 난이도가 높아져 공부할 과목이 늘어나고 학생들에게 부담감만 많이 줄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때문에 더 이상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안정된 교육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이유로 수능을 2번 실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김우경(가명/학생)



경기지부

지난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를 축하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고양지회

청소년자원봉사대는 9월에 고추따기를 했어요. 꼭 빨간 고추만 따야 한다아~.



추억의 가을운동회를 했어요. 과자 따먹기, 포크댄스, 줄넘기 등. 지금은 미니축구 하는 중.



인천지부

지난 9월 13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인천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나근형 교육감 딸 특채의혹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광주지부

오는 10월 3일, 보물섬 증도로 생태기행 갑니다.



내리쬐는 뽕야별 태평염전에서 피어나는 소금꽃 체험 할랍니다.



목포지회

여름캠프에서 탁구대회에 참가 중인 우리회원들 파이팅!



광양지회

광양시 예산보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공부했어요.



지난 9월 11일,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타기 행사에 참가했던 회원가족들이랍니다.



부산지부

금강경 공부를 뒤로하고 가을엔 천수경 공부를 하려 합니다.



울산지부

지난 9월 15일, 제일고 조리원들의 부당해고와 위탁파랑급식을 알리는 1인시위 중인 최선미 지부장.



거제지회

거제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인권영화제에 참석해 한 컷.



상주지회

일제고사 반대 거리선전 중인 상주지회 회원들.



지부지회 소모임 - 남부지회

영화를 통해 청소년 이해하기

우리 지회는 소모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내기 학부모 교실' 후속모임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 소모임(상상의 친구)이 있었지만 지난해로 막을 내렸다. 뭔가 계기를 마련하여 소모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영화를 통해 청소년을 이해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회원이나 학부모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특히 영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라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6개월 후에는 영화보기 소모임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기도 했다.

영화 보기는 매월 1회 진행되었다. 그동안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언어들, 사회에 대한 무관심(시선 1318), 동성애를 둘러싼 학생들 간의 관계와 부모의 반응(bomb! bomb! bomb!, 이춘기), 이주 노동자가 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반



두비), 가족의 당위성을 의심하고 뒤집어보고 싶은 생각에서 출발한 안타가족 이야기(다섯은 너무 많아), 청소년기의 임신(주노), 고등학교 졸업 후 20세 소녀들이 겪는 삶의 고민(고양이를 부탁해)을 살펴 보았다.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했다. '시선 1318'과 'bomb! bomb! bomb!' '이춘기'를 보면서 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참여한

학생들은 너무나 모범생들이거나 초등학생이어서 동성애에 관한 내용은 조금 어려웠다고 했다. 역시 남부지회 회원들의 자녀교육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좀 더 열띤 생각의 나눔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어른들의 입장이 아닌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했다. 어느 장면에서는 통쾌해하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보기도 했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나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시점에서는 좋은 언어로 포장을 하지만 나에게만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

서로 영화를 보고 마음을 나누다 보니 벌써 반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영화 보기' 소모임을 만들어 회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6개월 동안의 영화보기는 막을 내렸다.

박선애(남부지회 편집부장)

두 번의 영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곰플레이어가 고장인 듯 했다. 그리고 영화를 보았다.

두 번째는 동성애자에 관한 영화를 봤다. 사실 재미는 없었다. 솔직히 구역질도 나온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충격적이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오신 아줌마들이 그것을 사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난 싫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깨고 싶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말하던 도중 "난 여자가 좋아요" 라고 말했다. 맞다 난 여자가 좋다. 다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웃겼다. 그나마 웃겨서 다행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나서 나는 얻은 것이 많다. 일단 친구를 얻었다. '한 모'라는 친구인데 사실 나도 처음 봤다. 눈썹이 강하고 매력 있게 생긴 아이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 그냥 매력 있게 생겼다는 것이다. 둘째로 나는 봤다. 내가 일반인 가운데 진심으로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영화 평론가 누

나이다. 둘째 날 오면서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영화평론가 누나 나이가 어떻게 돼?" 그러자 엄마는 "서른 넘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사실 그날 영화에서 본 그 동성애자 영화보다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 순간 '하늘이시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바로 그날 나는 그 프로그램에서 만족한 부분을 쓰라는 질문에 '영화 평론가 누나가 예쁘다' 라고 적었다.

영화를 보러 간다기보다는 누나를 보러 가길 원했던 듯 하다.(참고로 난 요즘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라는 노래를 자주 듣게 된다.)그러나 이제는 학교가 개학해서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참석하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자 친구 없는 남자들은 영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예쁜 누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쁜 누나 보고 싶으면 많이 참가해라~~~!!! 김석희(역삼중 3학년)

88 역삼중사 내용

영화를 보고난 후

- ◆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 ◆ 관대하다고 아니 넓은, 물렁한 사고라 생각했던 부분도 내 문제로 다가올 때의 당혹감...
- ◆ 이해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음.
- ◆ 마지막에 서로 이야기할 때 다양한 시선에서 영화를 다시 보게 되어서 좋았다.
- ◆ 단편 여러 개보다는 장편 하나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 ◆ 느낀 게 많았고 생각을 말로 옮기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 ◆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독립영화를 보아서 새롭고 좋았다.
-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대화가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 같아 선물을 한 바구니 얻어 가는 것 같아 즐거웠다.
- ◆ 간략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즐거웠다.
- ◆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이, 집단따돌림 방치한 담임교사의 잘못 아닌가

Q 별 문제없이 잘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 3학년에 들어서 무슨 일인지 자꾸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을 잘 못하고 적지 않은 돈이 없어지는 등 아이가 이상하다고 느껴 5월에 담임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적응을 못하면 전학을 가야한다는 말과 함께 학기 초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왕따'로 나왔다고 했다. 돈 문제도 다른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우리 아이 잘못이라고 하여 내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했더니 대질신문해야한다고 하기에 아이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니 돈을 가져간 아이들이 보복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잘 마무리 해달라고 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혹여 정말 내 아이의 문제인가 싶어서 망설이던 끝에 담임을 통해 특수교육신청을 했다. 6월 1일에 검사를 하였고 7월 5일에 특수교육대상자로 되었다는 교육청의 통보를 받았다.

처음엔 온전히 우리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7월 9일 처음으로 교실을 무단 이탈했을 때 "뭐 이런 아이가 있나?"는 담임교사의 전화에 가슴 좁이며 아이를 찾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5번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그 가운데 주동한 아이는 거의 매일 우리아이 책상에 세제를 잔뜩 뿌려 의자에 앉을 수 없게끔 했다고 한다. 처음

무단이탈했던 그 날이 바로 세제를 아이 머리에서 들이붓던 날이었다. 담임교사는 자꾸 우리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했고 아이는 결국 친구들의 보복이 두려워 자기가 그랬다고 말했다. '화장실 문지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쉬는 시간, 심지어는 점심도 안 먹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아이는 현재 학교를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폭행한 아이들이 누구인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

피해사실을 모두 기록한 문서를 특수교사와 담임에게 전달하였다. 자치위원회에 그간의 일을 기록한 것을 보였더니 몇 달 전 돈 갈취한 내용만 알고, 다른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담임교사가 학교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가해아이 부모가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자치위원회는 주동한 아이 한 명에 대해서 전학조치 했다.

사실을 알고도 우리아이 문제로 돌리고, 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한 담임교사와 가해아이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길 원한다. 담임은 책임을 피하고 있고 학교는 가해아이를 전학 보낸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아이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렵기도 하고 교사와 학교를 믿을 수 없어 이 상태로는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

A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만큼 충격도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담임교사는 집단따돌림이 장기적으로 일어났는데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은 채 아이의 문제로만 돌렸군요. 직접적인 폭력도 문제이지만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등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은 더 심각한 일인데 말이지요. 담임교사가 피해아이의 학교부적응 문제로 간주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고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가해아이를 또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장난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가해아이의 행동이 왜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없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함이 많은 학교체제이지만 그래도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학교 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해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해야 등교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심리상담과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같은 반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실시해야



진정한 재발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임교사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담임교사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장을 면담하여 요청하십시오. 담임교사는 학기 초부터 따돌림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아이의 장애가 따돌림의 원인처럼 생각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아이에 비해 부족한 아이라고 하여 따돌림 당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보호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일상적인 생활지도의 수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과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서로 협력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의 일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시고 담임교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학교장을 면담하여 담임교사의 사과를 이끌어내도록 요청하시고 위에서 말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흔의 낭만

마흔 고개를 넘기가 생각보다 힘들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인데 4란 숫자가 앞쪽에 붙고 나니 서른아홉에서 한 살만 더 먹은 게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허무하고 분할까. 남들처럼 하루 24시간씩 살았는데 몇 시간씩은 털 산 것처럼 억울하다. 이렇게 허방허방 사십년을 산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그 세월들을 허송할까 두렵기 때문 일까.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지금에서야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수줍게 핀 이름 모를 향송이 꽃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느끼면서, 무심한 아이들한테 이것 좀 보라고 난리를 치게 된다. 마치 사춘기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별것도 아닌 일들이 설레고 가슴 아프다. 쩌~해져 가는 인생을 즐기고 싶은 아줌마 셋이 뭉쳐 추석연휴 마지막 날,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다. 나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애썼다. 시댁에 가서도 제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남편한테도 잘 안 나오지만 콧소리 섞어가며 대화하고, 마지막까지 따라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달래고 억박질러서... 결국은 다 떼어내고 훌쩍 분하게 떠났다. 남편과 아이들로부터 탈출한 친구들의 얼굴은 잔주름이 자글자글 하지만 해맑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찍 만나 '브런치' 먹고 바로 무의도로 떠나려 했는데 공황분위기에 휩싸여 카페에 죽치고 앉아 두세 시간을 수다에 몰입하다 12시나 돼야야 무의도로 떠날 수 있었다.

걸어서 서너 시간이면 섬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무의도지만 산도 있고, 해수욕장과 있고, 펜션도 있었다. 여기가 과연 도시에서 1시간밖에 안 떨어진 곳인가 싶게 좋았다.

운 좋게도 썰물 때라 무의도에서 실미도로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 예전엔 실미도에 영화 세트장이 있어서 볼

게 더 많았다는데 얼마 전에 다 철거가 돼서 지금은 그냥 행한 섬일 뿐이다. 하지만 오랜만의 탈출에 세트장이 있던 없건 뭐가 대승가. 9월 하늘답지 않게 깊고 푸른 하늘도 보고 모래사장도 자근자근 밟아가며 시간이 흐르는 게 아쉬울 따름이었다.

썰물시간 때문에 서둘러 실미도를 떠나 다시 무의도로 건너왔다. 낙조를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다는 '하나게 해수욕장'으로 가서 조개구이와 바지락 칼국수를 배터지게 먹고 나니 어느새 해가 바다 가까이 기울어 있었다.

모래사장을 거닐며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친구가 가방에서 된가를 꺼낸다. 작은 돛자리와 핸드폰에 연결할 수 있는 스피커였다. 모래위에 자리를 깔고 세 아줌마가 엉덩이를 좁혀 앉았다. 우리는 말이 없어지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에 반사된 빨개진 얼굴로 바자의 생각에 잠겨서. 넬(nell)의 '기억을 걷는 시간'이란 노래를 듣고 있는데 붉게 물든 바다 저편으로 해가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해의 마지막 붉은 조각이 사라지는 순간 별의 노래가 끝났다.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강승희(11기 상담원)

● 회원인터뷰_서애란(전 경기지부장)

우리아이 교육방법, 정답은 없다



본인과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고 철도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편과 세 딸이 있습니다.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펜싱선수이고, 둘째딸은 초등학교6학년, 막내는 5학년입니다. 세 아이 모두 운동신경이 발달하여 초등학교 운동회 때면 계주선수로 뽑히고 학교에서 체육행사가 있으면 학교대표로 높이 뛰기 선수로도 나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 보람이나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있다면...

세 아이를 키우면서 얻은 결론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세 아이가 모두 특성이 달라 어떤 아이에게는 좋은 교육법이 다른 아이에게는 나쁜 교육법이 되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르게 적용하면 아이들의 향의가 바로 들어오게 되니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요령껏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하기입니다. 공부계획은 물론이고 준비물, 집안일 등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하는 것이 어색하고 답답해서 제가 대신 해주고 싶은 유혹이 여러 번 있었지만 믿고 기다려주니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끔 너무 아이들이

챙겨주는 부모를 보면 아이들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아이들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것을 인정해준다면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주변 분의 권유로 처음 참교육학부모회를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세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부모단체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부모들도 참교육학부모회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고, 알아도 관심도가 약하다는 것이 현실인 만큼 모든 학부모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일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일이 있나요?

활동하면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이들 문제는 남편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배우고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활동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잃어주고 성적으로 아이를 판단하는 것보다 아이의 개성을 존중 해주려는 노력이 전보다 더 많아졌으니까요, 아이들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는 일들은 있어요. 학원에 가는 일이라든가, 몇 점 이상 안 되면 부모에게 벌을 받아서 속상해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부모들이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사회의 교육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실감이 나면서 한편으로 과연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도 모르게 납니다. 자식의 장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함부로 말하기 어렵고 설득하기도 힘이 듭니다. 같이 이야기할 때는 수긍하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모들이 많지만 한명이라도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계속 해야겠죠.

6.2 지방선거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와 과정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한계 가운데 한 가지가 아무리 많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도 결국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란 정치인이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다 보니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선거공약 대부분이 아이들과 관련된 교육문제들이었고 학부모들의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친환경 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친환경하면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설명을 들으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반응들이었죠. 저는 이런 바람들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낙선하여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생각이 같은 분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도록 지도 의회 밖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터

군말산책 16



최기종(목포지회 교육부장)

213호부터 최기종 회원의 군말산책을 실었다. 최기종 회원의 시집 『나무 위의 여자』에다 군말을 덧붙여서 부부 사이를 조명한 글이다. 군말은 사전 뜻으로 '붙어있는 말'이지만 '한번쯤 짚고 넘어갈 말' 이기도 하다. 이 심터를 통하여 우리 부부 사이를 한번쯤 생각해보자.

*** 이번 호를 끝으로 군말산책을 마칠까 한다. 이 군말산책을 쓰면서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얻었다. 하나는 아내에 대한 연민의 정을 계속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정생활의 산책거

사랑해?

도미를 치면 아내가 물었다. -나, 사랑해? 계속 뒤돌아 얼굴을 다밀면서 -정말요 사랑해는 거맞아요? 그런데 나는 말을 못한다. 어색하게 웃기만 한다. 아내가 뒤돌아서다. 부어에서는 도미소리만 요란하다.

아내가 잠자리에서 물었다. -나, 열미로 사랑해? 가슴팍으로 때고들면서 -모자... 사랑해는 거맞지 않아요? +그게 뭐든만큼 또 딱만큼 열미 쿵소리 응수하니까

이불 속에는 코맹맹이만 그득하다. 최기종 시집 <<나무 위의 여자>>중에서

관

요세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언가 절실하고 그림고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것, 내 전부를 송두리째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요세 드라마나 문자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퇴색되어서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자조해 본다.

그런데도 사랑한다는 표현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한다. 그것이 절실하든 절실하지 않든, 깊은 내면에서 나온 애기스이든, 그냥 입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사교술이든 간에 사랑한다는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생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안감이나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자주 확인 도장을 찍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실한 사랑이 사라져 가는 안타까움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 아내도 가끔 가다가 나에게 물어오는 말이 있다.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오면 난감해진다. 나는 곧바로 응답을 못한다. 내 입에서 "응,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랑이라는 말은 공중을 떠도는 미아로 남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말은 가슴에 꿈꿈이 간직하면서 그것을 두 배, 세 배 키워내는 절심함이 배여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그런 아내의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어색하게 웃기만 한다. 물론 그냥 "사랑해" 이렇게 응답하면 아내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나도 사랑의 무거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싶지는 않다. 사랑이 눈에 보일 때에만 "응, 무지 사랑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뻐다. 지면을 주신 편집위원 장담께 감사하 드린다. 사실 나는 낮찍이 상당히 두꺼운 사람이다. 이렇게 답할 때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되짚고 있으니 말이다. 세상의 남성들이 팔볼축이

라고 떠들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아내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한 이 노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내키지도 않는 글을 읽어주시는 참교육학부모회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고맙습니다.

◆ 문화사랑방

『먼지의 여행』 밑줄낭독회

'밑줄낭독회에 초대합니다' 라는 메일이 눈에 띄었다. 뭘 한다는 얘기지? 『먼지의 여행』이라는 책을 읽으며, 자신이 밑줄 그은 부분을 낭독도 하고 저자와 이야기도 나누는 행사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 교실의 한 형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다른 느낌도 들어 한 번 참여해 보기로 했다. 지난 9월 10일, 마포평생학습관 1층 전시실을 찾았다.

조금 일찍 도착한 덕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켜볼 수 있었다. 땀가 좀 다른 분위기였다. 바닥에 빙 둘러 앉을 수 있도록 매트 깔고, 한가운데는 나뭇가지와 책, 그리고 촛불을 밝혀 차분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자아냈다. 옆에는 통기타도 놓여 있었다. 참여자들을 위한 간식 또한 특이했다. 과자와 떡 그리고 음료 등이 놓여 있는데 접시는 없는 것이다. "여기 서서 하나씩 집어 먹는 건가요?" 뽕튀기 과자를 가리키며 거기가 필요한 만큼 담아가지고 가서 그 과자까지 모두 먹으라는 것이다. 아~~~!

참여자 또한 특이했다. 10대에서부터 70대 노인까지 50여 명이 모인 것 같은데, 그들은 교양으로서 인문학을 즐긴다기보다 독서를 통하여 깨달은 의미를 삶 속에 그대로 살려내려는 사람들로 보여, 마치 명상센터 같았다. 오늘의 주제인 『먼지의 여행』(산티출판사, http://blog.naver.com/shantibooks, 02-3143-6360) 저자 신혜님이 장거 꼬리깃털을 몇 개 묶어 만든 '발언권 마이

크' (talking stick)를 잡고 책을 얽힌 이야기를 소곤소곤 들려주더니, 마이크를 옆으로 넘겼다. 참여한 사람들 거의 모두가 책과의 인연과 감명 깊었던 구절을 읽어나 갔다.

임신 중에 『먼지의 여행』을 읽으며 감명을 받았다는 아기 엄마가 갓 태어난 그 아기를 데리고 참여해서 "어린 아이는 계속 넘어지면서도 걸으려 하기에 걸을 수 있다. 두려워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어른아이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해 볼 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 (105쪽)는 구절을 낭독하는가 하면, 40대 중년 여성이 일어나 "내가 이 수녀원에 들어와 이곳의 규율을 따르기로 한 건, 이 방법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이곳의 규율을 따르는 게 내 선택이고, 그래서 난 자유로워요." (슈슈바반 유아원 수녀의 말, 192쪽)라는 구절을 읽어 간다. 때로는 토론이 이뤄지기도 하고, 어떤 독자는

오늘도 이렇게 (140쪽)

오늘도 이렇게 / 살게 해주신 당신께 저 높은 하늘로 / 내 마음의 노래 드리네
오늘도 이렇게 / 행복하게 해주신 당신께 저 높은 하늘로 / 내 마음의 노래 드리네

라 라 라 라...

부분을 읽고나서, 저자에게 노래로 불러 달라고 한다. 저자는 서슴없이 기타를 잡아들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 그래서 기타가 있었구나...

환상 속에 진행되던 낭독이 끝나자 모두 자기 주위를 청소하고 장식물을 거두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밑줄낭독회는 특별한 진행자와 발제자 없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모임이었다. 각자가 읽으면서 자신의 가슴에 보석처럼 박힌 문장을 낭독하고, 왜 그곳에 밑줄을 그었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절로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면서 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 『먼지의 여행』 밑줄낭독회처럼 저자가 함께 할 경우에는 독자가 낭독한 부분에 대해 저자 자신의 생각이나 글 쓸 당시의 상황설명을 보태기도 해서 책을 더 생생하고 풍성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송환웅(언론정보출판위원회 위원장)



▶ 밥상머리교육(2)

공부와 먹을거리의 상관관계-좋은 음식 먹어야 공부도 잘한다



박선우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족과 천천히 먹으라고 하고 학부모는 너 먼저 빨리 먹고 얼른 공부해라 합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한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공익광고이다. 논란 끝에 방송에서 사라졌지만 음식에 관한 것을 한 구절 덧붙여 봤다. 음식이 교육에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래야 뇌세포기능이 향상되고 집중력도 높아져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해야 긴장도 적당히 풀 수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좋은 음식을 준비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수험생 부모의 첫 번째 의무이다. 좋은 음식이란 어떤 음식일까? 아이들이 꿈쩍이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을 자주 주는 것일까? 이런 패스트푸드는 아이들 몸을 망친다.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신선한 음식이어야 한다. 좋은 음식을 적정량 규칙적으로 먹어야 몸의 기능이 좋아져 최고의 공부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좋은 휘발유와 신선한 윤활유가 충분해야 자동차가 잘 달리듯이 사람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잘 움직이고 뇌기능도 좋아진다. 음식은 두 가지를 함께 공급한다. 연료는 주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지방이고 기계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은 미네랄, 비타민, 효소, 식이섬유 등 영양소들이다. 에너지원으로는 탄수화물이 가장 효율적이다. 모 재벌 회장인 고기만 먹고 살을 빼 황체 다이어트라고 불렀던 옛 킥스 다이어트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적게 생산돼 극심한 피로가 오고 콩팥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최근 하버드대 식품영양학과 윌렛(W. Willet)교수는 지방섭취량이 높은 황체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고탄수화물 저지방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보다 의학적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보통 탄수화물55~60%, 지방 25~30%, 단백질 15~18% 비율로 섭취해야 하는데 노동 강도가 높을수록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져야 하며 당연히 동물성보다는 채식 위주의 신선한 자연식단이 좋다.

나쁜 첨가물이 들어간 유사 휘발유를 쓰면 자동차 엔진이 망가지듯이 우리 몸도 방부제나 유해 색소 등이 첨가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의 기능이 좋아져 최고의 공부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좋은 휘발유와 신선한 윤활유가 충분해야 자동차가 잘 달리듯이 사람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잘 움직이고 뇌기능도 좋아진다. 음식은 두 가지를 함께 공급한다. 연료는 주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지방이고 기계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은 미네랄, 비타민, 효소, 식이섬유 등 영양소들이다. 에너지원으로는 탄수화물이 가장 효율적이다. 모 재벌 회장인 고기만 먹고 살을 빼 황체 다이어트라고 불렀던 옛 킥스 다이어트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적게 생산돼 극심한 피로가 오고 콩팥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최근 하버드대 식품영양학과 윌렛(W. Willet)교수는 지방섭취량이 높은 황체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고탄수화물 저지방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보다 의학적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보통 탄수화물55~60%, 지방 25~30%, 단백질 15~18% 비율로 섭취해야 하는데 노동 강도가 높을수록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져야 하며 당연히 동물성보다는 채식 위주의 신선한 자연식단이 좋다.

나쁜 첨가물이 들어간 유사 휘발유를 쓰면 자동차 엔진이 망가지듯이 우리 몸도 방부제나 유해 색소 등이 첨가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

으면 기계가 뻑뻑해 잘 돌아가지 않아 연비가 크게 떨어지듯이 패스트푸드처럼 열량만 높고 미네랄, 비타민, 효소 등 영양소가 결핍되면 에너지대사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이 영양소 결핍으로 대사가 느려져 체내 에너지체인 ATP(아데노신삼인산) 생산이 부족해 나타나는 대사후후군(metabolic syndrome)이다. 그 결과,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가 나타나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시스템에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산만한 아이들이 고도의 장시간 집중이 필요한 공부를 잘 할리 없다. 당이 대사가 느려져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방이 되어 간에 쌓이면 지방간, 내장에 쌓이면 내장지방, 피부 층에 쌓이면 피하지방이 되고, 혈당과다 상태에서 그대로 오줌으로 나가면 당뇨가 된다. 반복적으로 중이염이 발병하고 배가 자주 아프거나 두통, 비염, 아토피 등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지속적인 나쁜 음식섭취로 인한 면역력저하를 의심해봐야 한다. 이러한 상태가 만성이 되어 어른이 되면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궤양성 대장염, 루프스 등 자기면역질환이나 비만, 당뇨, 심장병, 암으로 발전되기 쉽다.

이기영(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 호서대 교육대학원장)

슈퍼 박테리아와 한국

이 글은 지면 관계상 필자의 동의를 받아 줄인 것입니다. 원문은 우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9월 9일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A. 레넨후크(1632~1723)는 빗물을 통해 많은 미생물이 자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다가 음식물의 부패는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미생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다시 말하면 오염된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L.파스퇴르(1822~1895)가 밝혀 내게 된다. 그러다가 A.플레밍(1881~1955)이 푸른곰팡이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음을 알아내고, 그 이름을 페니실린(Penicillin)이라고 명명하면서 인류 역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세롭고 강력한 항생제가 개발됨으로써 세균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복창해야 될 것 같았다.

항생제 내성의 문제

인류는 너무 자만했던 것일까? 항생제 사용 5~60년 사이에 이제 페니실린을 사용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 아니 그 이후 쏟아져 나온 항생제들도 내성이 생겨서 병원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방어력을 구축함으로써 자기방어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 놈들이 죽어주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놈들은 유전적 변이와 개체 강화를 통해 항생제가 들어와도 피식 웃으며 가지고 놀아버린다. 이렇게 해서 생긴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을 만들고 치료

효과도 없게 만드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슈퍼 박테리아는 과연 '슈퍼'일까?

얼마 전 도쿄 한 대학병원에서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언론들이 난리다. 우리는 '슈퍼 박테리아'라고 하면 아주 강력한 세균인 줄 알지만, 사실 그 세균들은 항생제 내성이 강할 뿐, 우리가 과거에 잘 치료받았던 대장균, 폐렴 세균, 포도상구균과 같은 것들이다. 괜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언론의 선정적 저널리즘이 어떤 결과로 언론을 접하는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슈퍼박테리아로 지칭하면서 세균에 초점을 맞춰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내성의 원인을 따져 그 예방에 무게를 실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슈퍼박테리아와 한국

우리나라에도 이미 가장 강력한 항생제라는 '반코마이신'에 끄떡 않는 대장균(VRE)이 있고, 중요한 치료제인 메치실린이라는 항생제도 안 듣는 포도상구균(MRSA) 등 여러 종이 발견되었다. 즉 세균에 감염되었는데 쓸 약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21세기 과학의 첨가재가 보도되었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이로 인해 백악이 무효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모르고 지나가거나 보도가 안 될 뿐이다.

이렇게 항생제 내성이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항생제의 남용과 오용이다. 열이 나거나 목이 조금만 아파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축산이나 양어, 양계 과정에서는 인간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항생제를 먹인다. 우리는 맛있는 고기를 먹지만 이미 항생제에 찌든 고기나 생선을 먹고 있는 셈이다.

환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적절히 항생제를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먹다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어버리면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치료하기가 힘들어진다.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OECD 기준으로 볼 때 항생제 이용률이 높은 나라다. 의사와 환자 간의 안정된 소통구조를 갖추으로써 불필요한 약을 안 써도 되고, 예방적인 내용들을 말할 수 있고, 항생제 사용에 주의할 점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게 되어 의사와 환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지금도 우리 옆을 떠돌아다니는 슈퍼 아닌 슈퍼 박테리아를 인식하면서 단을 달린다는 요즘의 의료 현실이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가 보도되었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이로 인해 백악이 무효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모르고 지나가거나 보도가 안 될 뿐이다.

고병수(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유린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지난 8월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결과로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될 주된 내용은 '체벌 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그 보도를 접하는 순간 '우리회를 비롯해서 진보진영에서 그동안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해 10년 이상 노력했지만 번번이 보수 세력에 의해서 가로막혀 이루지 못한 것을 정부가 나서서 실현이 되는구나'란 생각이 들면서도 교과부의 그간의 행보에 비춰볼 때 미심쩍었다.

왜냐하면 교과부는 교총과 함께 체벌금지에 대해서 시기상조란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지침을 내리자 서울시교육청 지침이 법령에 충돌하는지 법률자문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경기도 의회에서 곧 통과 될 시점이었다. 어떤 식으로든 상급 기관으로서 안을 내놔야 했다.

그런데 아니냐 다를까 우려가 현

실로 나타났다.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하며 당선된 6개 지역의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킬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는 상 위법에 위배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체벌과 학생인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폼을 가로막혀 이루지 못한 것을 정부가 나서서 실현이 되는구나'란 생각이 들면서도 교과부의 그간의 행보에 비춰볼 때 미심쩍었다. 왜냐하면 교과부는 교총과 함께 체벌금지에 대해서 시기상조란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지침을 내리자 서울시교육청 지침이 법령에 충돌하는지 법률자문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경기도 의회에서 곧 통과 될 시점이었다. 어떤 식으로든 상급 기관으로서 안을 내놔야 했다. 그런데 아니냐 다를까 우려가 현

효화시키기 위해 수작부린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교총은 수많은 토론회에 나와 '상황이 다른 교육감에 따라 지역마다 규정을 달리 적용하면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우니 법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을 계속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시도 교육청이 아니라 더 작은 단위인 학교마다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교육목적'과 '교육상 필요'한 경우를 들어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하면 혼란스럽고 학교장이 하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인가.

이제 학생인권보장은 대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조약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인권은 보장되어 있다. 그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과부와 교총은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진보교육감의 개혁적인 정책을 뒤엎기 위한 폼을 부리지 말고, 이제 학생인권의 큰 물결에 합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점점 심해지는 영어 교육 열병, 어찌하면 좋은가! 영어 논문만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조선일보 큰 말쑥

일찍이 김영삼 정권이 시작한 영어 조기교육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국어와 국사, 다른 외국어 교육을 뒷전으로 몰아 교육환경을 더럽히고 우리 말글살이까지 어지럽게 만들었다. 영어 조기유학바람을 일으켜서 기러기 아빠가 생기고, 영어 발음을 잘하게 한다고 혀를 수술했는 애들도 나왔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영어마을을 만들더니 영어 특구, 특별자치도도 생겼다. 영어를 우리 공용어로 하자는 무리까지 설치고, 실제로 영어로 회의하는 기업과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까지 나왔다. 이 영어 망국병이 얼마나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이다.



지난 9월 11일 한글학회 교육관에서 한말글문화협회 주최한 교육 정책 이야기 마당에서 조선일보의 대학평가 방식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

로 논문을 쓰는 것을 전제로 대학 교수와 대학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영어 논문 비중이 70%나 반영되게 짜여 있다. 더욱이 이 평가를 외국 회사의 검색기계로 자동 처리하는데 한국어로 쓴 논문은 0점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각 대학이 이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와 같이 한국어로 논문을 쓰면 '0' 점을 받고 영어로 논문을 써서 국제 저명 학술지에 실리면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고 큰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는 현실에서 한국 대학 교수들이 한국어로 논문 쓰기를 바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10년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할 한국어는 이 땅에서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영원히 잃고 저급한 2류 언어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이

런 대학 개혁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나 인도, 필리핀과 같은 나라의 위치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이 발표에 토론자로 나온 국립국어원 최용기 부장과 참석자들은 모두 영어 논문으로만 대학 평가를 하는 일에 대해서 "어이없는 일이다. 조선일보가 대학교수와 대학을 평가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김두루한 외솔회 사무국장은 "한국말은 학문에서 존중받은 일이 없다. 이제 우리말로 학문을 하고, 정부와 한글글 단체가 우리말을 힘센 말이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토론을 했다.

미국이나 영국, 이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도 아니고 멀쩡한 제 말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학과 언론기관이 그러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영어 열병을 부채질해서 참교육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말과 학문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 교육에 나라는 말할 거 없고 개인도 너무 많은 돈과 힘과 시간을 바쳐서 다른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나라와 겨레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 걱정인데 언론이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더 하니 기가 막힌다. 조선일보는 그 사임을 당장 그만두라.

이대로(한말글문화협회 대표, http://blog.segye.com/idaero)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이 가을에..



이 만화는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중 '이 가을에'를 실은 것입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은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뉘어 1년 동안 학생들과 부딪히며 발생하는 상황을 만화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의 동의 하에 2년 째 연재합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풍경) 지은이_이성수 출판사_나라말 가격_9,000원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정은숙 편집위원 송환용 오명실 이희정 임영희 강인수 주소 (우)110-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2층) 전화 02-393-8900 전승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정은숙 수석부회장 송환용 부회장 김석순 최주영 김 사 임영희 서경자 정복순 상담실장 박부희 정책위원장 윤숙자 교육자치위원장 천은지 조직위원장 최주영 언론정보 출판위원장 송환용 상근자 심정숙 협소영 박수미 강인수			
서울지부 0213491-5235	지부장 최정화	남부지회 021588-8980	지회장 김혜순
동북부지회 0213491-5235	지회장 최정화	인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종
경기지부 031864-3958	대행 김부성	교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지회 031568-2311	지회장 최희희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김윤주
안양지회 010-2215-2536	지회장 이정실	양주지회 010-8915-5248	지회장 정영미
용인지회 031281-7969	지회장 조소희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수원지회 010-9196-2075	지회장 정연훈
김포지회 070-7761-9890	지회장 이준석	강원지부 0331763-6423	지회장 윤금옥
충남지부 041576-6677	대행 손정화	천안지회 041576-6677	지회장 박갑주
충성지회 010-5420-3979	지회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1-430-3414	지회장 이희출
광주지부 0621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31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남지회 0631231-9770	지회장 임혜순	정읍지회 0631535-0191	지회장 정세희
전남지부 0611334-9271	지부장 오승주	목포지회 0611284-6575	지회장 김승진
화순지회 061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나주지회 0611334-9271	지회장 박정연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영암지회 010-9473-6876	지회장 정미숙
광양지회 010-5622-5333	지회장 이희정	대구지부 0531751-4070	지부장 양승희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울산지부 0521268-0987	지부장 최선미
경북지부 017-511-9143	지부장 신현자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균
포항지회 0541242-9143	지회장 전금순	구미지회 011-506-2601	지회장 김성희
상주지회 010-2276-2338	지회장 김미경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지회 010-7580-8796	지회장 신경진	경남지부 051282-1950	지부장 김미선
진주시지회 0551748-1352	지회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1638-4130	지회장 최양희
마창진지회 0551282-1950	지회장 진인애	김해지회 010-3359-9579	지회장 임정현
거창지회 0551942-8272	지회장 유수상	밀양지회 010-9955-0148	지회장 하정훈

지문위원회 ● 이주원(지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김소원(한신대 교수)/강지현(법률사무소 창지 변호사)/권정혜(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태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민환(전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삼(성동굴법정경동고등학교 교수)/김용일(한국해양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용환(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사민)/민덕기(화성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명화홀랜드트레이닝센터 강동해결센터 소장)/배옥영(법학교과금성전대내트랙로 상담대표)/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훈(변호사)/송순재(경남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이재민(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영숙(새마을리상담 소장)/정홍재(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성희(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현성(전 강원대학교 총장)/황수경(어린이도서관 공주시공립 관장)

박선미 선생님과 아이들이 알콩달콩 꾸러가는 초등 1학년 교실 이야기



스무 해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박선미 선생님이 3년 동안 1학년 아이들과 생활했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치며 배워가는 아이들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정겨울리기'에만 마음을 쏟는 교육 현실 속에서도 뜻깊은 아이들 편에서 사랑을 보듬어 주는 박선미 선생님을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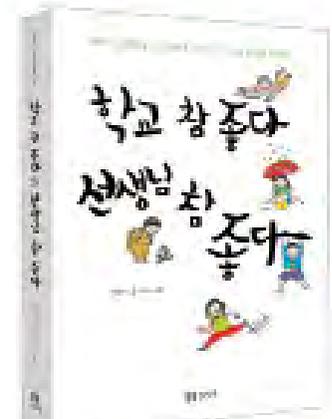
초등 1학년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책

첫 아이 학교 보내기
처음 학부모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책
주승중 글 | 미경진 그림 | 224쪽 | 8,000원

초등 1학년 교실 이야기
1학년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책
유대규 글 | 280쪽 | 9,500원

일기 쓰기 어떻게 시작할까?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새로운 일기 지도 길잡이
유대규 글 | 288쪽 | 7,000원

내가 처음 쓴 일기
1학년 한 반 아이들이 쓴 일기 모음
대구 근모초등학교 1학년 2반 글 | 유대규 엮음
김영민 그림 | 108쪽 | 6,800원



박선미 글 | 선미 그림 | 304쪽 | 12,000원

전화 021-855-3535 누리집 www.borbook.com 블로그 borbook.blog.naver.com 트위터 @borbook  보리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학교운영위원회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한 교육, 창의적 교육이 가능합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 설립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강화를 위한 연수를 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때 : 2010년 10월 28일(목) 오후 1시~ 6시
- ※ 곳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 주최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http://www.hakbumo.or.kr>)
- ※ 주관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 ※ 문의 :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회 / 02)393-8900

	시간	내용	강사
	1:00~1:10	인사말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1강	1:10~2:40	학교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의 역할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참교육학부모 전회장
2강	2:50~4:20	추경예산과 결산 심의 방법	유지숙 참교육학부모회 전서울지부장, 학운위 예·결산 강사
3강	4:30~6:00	학교급식소위원회, 앨범·수련활동 심의와 소위원회, 학교발전기금 심의와 불법찬조금의 이해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전수석부회장, 『학교 겁내지 말자』 공동저자



조직가 연수

- ※ 때 : 11월 02일~11월 25일(화) 10:30~17:30
- ※ 곳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의실 2층
- ※ 대상 : 학부모아카데미 수료자와 우리회 지부지회 임원 등 주요 활동가
- ※ 수강료 : 5만 원
- ※ 강사 : 박영미(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 문의 : 참교육학부모회 조직위원회 02-393-8900

	일시	주제
1강	11/02(화) 10:30~13:30	워크샵
2강	14:30~17:30	조직화 과제 선정
3강	11/09(화) 10:30~13:30	조직화 계획(만나기)
4강	14:30~17:30	조사와 전략 개발
5강	11/16(화) 10:30~13:30	리더발굴과 육성
6강	14:30~17:30	초동모임 모으기
7강	11/23(화) 10:30~13:30	조직화란 무엇인가?
8강	14:30~17:30	조직화 단계(방법론)